

# “타협안 오직 입장료 폐지뿐”

### 성과없는 '입장료 4자 회의'... 교계반응

#### 조계종 “산문폐쇄 15일 시한 변함 없다”

#### 내무부 “수익자 부담... 장기적 검토필요”

정부가 15일 이전에 국립공원입장료 철폐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지 않는 한 조계종이 친명한 산문폐쇄가 단행되는 등 분리징수를 둘러싸고 빚어진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9월중 3차례 열린 조계종 내무부 관리공단 문제부담 4자회의가 아무런 결론없이 공전된데다 4자회의 내용에 대한 교계 일각의 반론도 거세다. 따라서 산문폐쇄 최종시한인 15일까지 정부와 조계종이 모두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무회담에서 거론된 내용 가운데는 조계종과 정부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뿐 아니라 ‘공원입장료 폐지’라는 대전제 아래서는 어떤 논의도 모순점을 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15일까지 획기적인 ‘답안’이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무회담에서 조계종이 “공원입장료의 폐지시한을 명확히 정하자”고 요구한데

대해 내무부측은 “내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당장은 어려운 일”임을 내세우며 “수익자부담 원칙과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내무부는 합동징수와 관련한 조계종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합동징수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등에 명문화하고 공원입장료 가운데 일정금액을 사할의 공원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문제도 현재의 자연공원법을 개정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총무원 실무자의 전언이다. 내무부에서는 달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문화재관리료가 자율화된 이상 합동징수는 종전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여 내무부와 공단의 의견조율도 아직 과제로 남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9월 29일 조계종이 소집한 합동징수사찰 주지회의 이후 4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알려지자 교계 일각에서는 상당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 공원입장료의 철폐

만 확장되면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인데 합동징수등의 문제와 입장료 폐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데서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 반론의 요지다.

4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9월22일 총무원장 율주스님의 강도 높은 성명 내용과도 상치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율주스님의 대정부 성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던 민족문화추진회와 교구본사주지모임 회장 설조스님(불

국사주지)은 “종단 집행부가 그렇게 무책입하고 유약하게 대처했을까 없다”고 역설하며 “그런 회의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오는 13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모임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29일 합동징수 사찰주지회의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만이 종단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종단이 더이상 정부와 불리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공원입장료 폐지의 의지를 확고하고 종단의 실익을 챙기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해 산문폐쇄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연태 기자

## 법주사 강경대응... 홍보주력

### 신도·주민들 “공단 분리징수 철회하라”

공단측의 일방적인 분리매표가 시작된 8월29일 즉각 산문폐쇄조치를 내렸던 법주사는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사찰측 단독 합동징수 매표를 강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속리산관리사무소는 기존의 매표소 아래 별도의 매표소를 설치 공원입장료만을 매표하기 시작했으나 법주사측이 합동징수표만 인정해 통행을 허용하자 분리매표를 강행적으로 실시하며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조장하고 있다.



◇공원입장료 폐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법주사 신도들

다. 관리소측은 또 9월20일 법주사에 공문을 보내 ‘법주사측의 단독 매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시도하며 법주사와 대립해 왔다. 거기다 관리소측은 ‘법주사는 사찰담장안의 1만여평의 땅에 대해서만 주권을 행사하라’고 주장, 집단지구에서 문장대까지 이르는 7백50만평의 토지주인 법주사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관리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법주사 신도 1백50명이 9월 2일 항의시위를 했으며 전년에는 주민들도 탐방객의 격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법주사와 관리사무소에

‘상가철시’ 의지를 담은 생존권 대응 결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보은군도 법주사측 탐방객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중재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법주사는 8일 국립공원 규탄법회를 갖고 공원입장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과 중앙언론에 입장료 폐지의 당위성을 담은 홍보자료를 꾸준히 발송하며 9월 23일 자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주사의 강경대응이 지속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속리산관리사무소를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으로 맞서고 있다.

20여년 해외포교 외길만을 걸어온 원명스님은 인천 강화에 외국인들의 수행공간인 국제선원을 세우고 9월28일 개원식을 가지면서 해외포교의 또다른 장을 열었다. 종단의 지원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원명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 수요

### 인터뷰

#### 강화에 외국인선원 개원 원명스님

## “해외포교 인재양성 급해요”

- 해외포교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외국인들을 위한 번번한 수행공간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서양인들은 합리적이라 체계를 통해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강화 국제선원도 그런 필요성에 의해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체질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 러시아 등 6개국에 포교당 불서 해외소개에도 앞장

- 해외포교에 전념하게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82년과 84년 스리랑카와 영국에서 수행과 공부를 하던 중 수십나라 수백개 종교단체가 포교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영국 불교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불교서적이 한 권도 없다는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85년 귀국해 선방으로 갈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불교가 이대로 멈춰있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서울 안국동에 연동국제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이뤄온

성과도 결코 작지 않은 줄 압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6개국에 포교당을 개설해 현지 교민과 그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불교경전과 성철스님 저서를 번역해 출간하는 등 출판사업을 통한 포교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해외포교의 중요성은 이전 표현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정도가 되었는데...

▲일본과 티벳 등 다른나라의 포교활동과 비교하면 한국불교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촌은 이미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포교는 단순히 불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민족성을 알릴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 해외포교의 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우선 해외포교를 위한 인재양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히 불교만을 아는 사람이 아닌 그 나라 언어와 관습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아낌없는 지원과 불교계 전체의 해외포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명우 기자

옛날 어떤 사람이 왕사상에서 걸식하다가 암소한테 때받쳐 목숨을 잃었다. 소 임자는 겁이 나서 그날로 소를 팔았다.

소를 산 사람은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다가 소가 때받쳐 죽고 말았다. 그집 아들은 화가 나서 그 소를 때려 잡았다. 어떤 사람이 그 소머리를 사서 메고 가다가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나뭇가지에 걸여놓은 소머리가 떨어져 시골사람은 그 뿔에 찔려 죽었다.

밤비사라왕은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 달려갔다.

원한이 음흉/땀흘림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리”

한국과 일본의 축구경기는 늘 치열하다. “일본에게만은 이겨야 한다” 우리의 국민정서 못지 않게 일본도 “한국에게만은 이겨야 한다”는 심정일 것이다.

9월28일 도쿄의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일전을 어느 신문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표현했다. 우리의 5천여 ‘붉은 악마’들은 5만명의 홈팬 중에 맞서 응원했다. 서울에선 근교산에 등산객이 끊겼고,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많았다. 다른나라와는 경기에서 자국을 위한 열띤 응원과 승리의 축배를 막을 사

## 목어

### 韓·日 축구

“세존이시여 실로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한 마리 암소가 세사람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 세사람의 상인이 이웃나라로 장사하러 가서 외로운 노파집에 머물렀소. 그들은 며칠동안 편히 숙식을 했으면서도 노파를 무시해 갔도 치르지 않고 빠져나왔소. 노파는 그들을 저주했소. 다음생에는 축생이 되어 서로도 너희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말 것이다”

그 노파가 바로 오늘의 저 암소이고 죽은 세사람은 장사치들이요.”

부처님은 계승을 읊으셨다.

“함부로 남을 업신 여기면 미움과

잡은 아무도 없다. 다만 스포츠정신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민족감정이 깔려있는 응원도 두나라 사이에 골만 더욱 깊게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관중의 야유와 질시, 일본언론의 한국승리에 대한 짧은 사실보도, 가도 감독경질 의혹 등 스포츠 정신과 거리가 멀다. 어느 불교학자는 이런 모습을 ‘세계화 정신위배’라고 말했다.

한일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주최를 계기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닌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 나가자.

## ‘97 문화유산의 해

### 10월 테마여행 - 화엄사 연곡사

#### 한국인의 삶과 죽음(부도·석등의 의미)

단종빛 고운 산사(山寺)를 찾아 보시지 않으렵니까?

한민족의 영산 지리산(智異山). 이 산에는 화엄사상의 으뜸도량 화엄사를 비롯 연곡사, 천은사, 쌍계사 등 이름높은 고찰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엄사는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찾게 되는 곳입니다. 독특한 생김새를 자랑하는 화엄사 4사지3층석탑과 석등, 2층구조로 이루어진 각황전의 중후한 건축미, 도량에 스며있는 신비한 이야기 등 불거리와 이야깃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또한 이 사찰은 화엄사상이라는 고매한 불교사상이 깃들여 있어 단순한 눈요기 이상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6·25당시 발치산의 주요무대였던 지리산 피아골에 자리잡은 연곡사. 빼어나

## ‘불교문화 테마여행’

게 아름다운 부도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신라부도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국보33호인 동부도를 비롯 국보54호인 북부도, 보물154호인 서부도 등 통일신라시대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이름모를 고승들의 부도가 사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아골을 온통 피빛으로 새빨강게 물들여 놓은 단풍과 그 속에 스며있는 빨치산의 한, 그리고 고승들의 열렬했던 수행정신이 깊이 살아숨쉬는 이곳에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 출발: 10월 25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 회비: 4만원(조식제공)
- 안내: 소재구(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안국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일약품

# 개 관

## 10월 10일

# 해인사 미술관

귀의 삼보하옵고...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으로 곱게 물든 가야산에서 그동안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향후 우리문화와 교육의 요람이 될 「해인사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로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개관기념 『콘스님 특별전』을 개최하오니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망하옵니다.

● 미술관 구조 ●

1층: 도예교실

2층: 한식당

3층: 전시실

● 초계대광대탈 전시실

● 개관기념 콘스님특별전 ●

선서화및서찰 등70여점

구경봉담월하주 일타

구산 중광 성훈 환경 송월 수안

해인사 미술관 ● 주소: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전화: (0599)31-8778 · 31-9846 ● 관장: 性空 합장